A책형

1.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① 그는 밥도 안 먹고 일만 한다.
② 몸은 아파도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다.
③ 그는 그녀에게 물만 주었다.
④ 고향의 사투리까지 싫어할 이유는 없었다.

1. ②
②의 '마음만은'의 문장성분은 주어이고, 나머지는 모두 목적어이다.

2.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만 나열한 것은?

① 새까맣다-싯퍼렇다-샛노랗다
② 시뻘겋다-시허옇다-싯누렇다
③ 새퍼렇다-새빨갛다-샛노랗다
④ 시하얗다-시꺼멓다-싯누렇다

2. ②
① 싯퍼렇다→시퍼렇다
③ 새퍼렇다→시퍼렇다/새파랗다
④ 시하얗다→시허옇다/새하얗다

3. 다음 <보기>는 시의 일부분이다. 시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한자어는?

<보기>

세상에는, 자신이 믿는 단단한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말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테니스에 미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잇다.
유에프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중략>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① 편견(偏見) ② 불화(不和)
③ 오해(誤解) ④ 독선(獨善)

3. ①
<보기>의 시는 이희중의 '편견'이라는 시다. 마지막 시구에서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여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도 편견임을 비판하는 작품이다.
① 편견(偏見: 偏 치우칠 편/見 볼 견)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② 불화(不和: 不 아닐 불/和 화할 화) 서로 화합하지 못함. 또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함.
③ 오해(誤解: 誤 그르칠 오/解 풀 해)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앎.
④ 독선(獨善: 獨 홀로 독/善 착할 선)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일.

4. 서로 의미가 유사한 속담과 한자성어를 짝지은 것이다. 관련이 없는 것끼리 묶은 것은?

① 원님 덕에 나팔 분다. - 狐假虎威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晩時之歎
③ 언 발에 오줌 누기 - 雪上加霜
④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 目不識丁

4. ③
③ '언 발에 오줌 누기'는 언 발을 녹이려고 오줌을 누어 봤자 효력이 없다는 뜻으로 알맞은 한자성어는 '동족방뇨(凍足放尿)'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는 뜻으로, 알맞은 속담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 있다.
① 원님(사또) 덕에 나팔 분다: 원님과 동행한 덕분에 나팔 불고 요란히 맞아 주는 호화로운 대접을 받는다는 뜻으로, 남의 덕으로 당치도 아니한 행세를 하게 되거나 그런 대접을 받고 우쭐대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호가호위(狐假虎威 : 狐 여우 호/假 거짓 가/虎 범 호/威 위엄 위)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뜻으로, 남의 세력을 빌어 위세를 부린다는 말이다.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떤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 : 晩 늦을 만/時 때 시/之 갈 지/歎 탄식할 탄) '때 늦은 한탄'이라는 뜻으로,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서 탄식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기역 자 모양으로 생긴 낫을 보면서도 기역 자를 모른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목불식정(目不識丁 : 目 눈 목/不 아닐 불/識 알 식/丁 고무래 정) 고무래를 보고도 그것이 고무래 정(丁)자인 줄 모른다는 뜻으로, 글자를 전혀 모름, 또는 그러한 사람을 비유해 이르는 말이다.

5. <보기>의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글자가 아닌 것은?

<보기>

한글 중 초성자는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로 구분된다. 기본자는 조음기관의 모양을 상형한 글자이다.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한 것으로, 획을 더할 때마다 그 글자가 나타내는 소리의 세기는 세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체자는 획을 더한 것은 가획자와 같지만 가획을 해도 소리의 세기가 세어지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① ㄹ ② ㄷ ③ ㅂ ④ ㅊ

5. ①
①의 'ㄹ'은 반설음으로서, 가획자가 아닌 이체자이다.

6. 외래어 표기 용례로 올바른 것은?

① dot - 다트 ② parka - 파카
③ flat - 플래트 ④ chorus - 코루스

6. ②
'파카(parka)'는 올바른 표기이다.
① 다트→도트(dot)
③ 플래트→플랫(flat)
④ 코루소→코러스chorus)

7. <보기>의 ㉠~㉣을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다락골 ㉡ 국망봉 ㉢ 낭림산 ㉣ 한라산

① ㉠ - Dalakgol ② ㉡ - Gukmangbong
③ ㉢ - Nangrimsan ④ ㉣ - Hallasan

7. ④
㉣의 '한라산'은 [할:라산]으로 발음하고, 'ㄹㄹ'은 'll'로 적는다. 그리고 '산'과 같은 자연 지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따라서 'Hallasan'의 표기는 적절하다.
① Dalakgol→ Darakgol
② Gukmangbong→ Gungmangbong
③ Nangrimsan → Nangnimsan

8. <보기>는 황진이가 지은 시조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끼리 짝지은 것은?

<보기>

冬至ㅅ돌 기나긴 밤을 한 (㉠)를 버혀 내여,
(㉡) 니불 아레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 ㉡
① 허리 春風
② 허리 秋風
③ 머리 春風
④ 머리 秋風

8. ①
冬至ㅅ돌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춘풍(春風) 니불 아레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9.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불이 꺼져 간다.
② 그 사람은 잘 아는척한다.
③ 강물에 떠내려 가 버렸다.
④ 그가 올 듯도 하다.

9. ③
'떠내려가다'는 합성 동사이므로 붙여 쓴다.
① 본용언 '꺼져'와 보조용언 '간다'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도 있다.
② 의존 명사 '척'에 '-하다'가 결합하여 된 보조 용언 '척하다'는 본용언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 있다.
④ 조사가 붙은 '듯'은 의존 명사로 앞 말과 띄어 써야 한다.

10. 맞춤법 사용이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① 웃어른, 사흗날, 베갯잇
② 닐리리, 남존녀비, 혜택
③ 적잖은, 생각건대, 하마터면
④ 홑몸, 밋밋하다, 선율

10. ②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ㅣ'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니'로 적는다.
예) 닐리리 → 늴리리
*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예) 남존녀비→ 남존여비(男尊女卑):
* '계, 몌, 폐, 혜'의 'ㅖ'는 '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ㅖ'로 적는다.
예) 혜택→ 혜택[혜택(원칙)/헤택(허용)]

11. <보기>의 설명에 따라 올바르게 표기된 경우가 아닌 것은?

<보기>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① 섭섭지
② 흔타
③ 익숙치
④ 정결타

11. ③
*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안울림소리 받침 뒤에서 나타나는 경우 '-하'가 탈락한다. 따라서 '익숙하지'의 준말은 '익숙지'가 된다.
예) 섭섭하지→섭섭지
* 반대로 울림소리가 오면 'ㅎ'과 뒤에 오는 자음이 축약된다.
예) 흔하다→흔타, 정결하다→정결타, 다정하다→다정타

12. <보기 1>의 사례와 <보기 2>의 언어 특성이 가장 잘못 짝지어진 것은?

<보기 1>

㈎ '방송(放送)'은 '석방'에서 '보도'로 의미가 변하였다.

㈏ '밥'이라는 의미의 말소리 [밥]을 내 마음대로 [법]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은 '밥'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없다.

㈐ '종이가 찢어졌어'라는 말을 배운 아이는 '책이 찢어졌어'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낸다.

㈑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한국어에서는 '오늘[오늘]', 영어에서는 'today(투데이)'라고 한다.

<보기 2>

㉠ 규칙성 ㉡ 역사성 ㉢ 창조성 ㉣ 사회성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2. ④
(라)는 나라마다 언어의 형식이 다른 것이므로, 언어의 내용(의미)과 형식 사이에는 절대적이거나 필연적인 관계가 없는 '언어의 자의성'의 사례이다.

13. <보기>의 밑줄 친 시어를 현대어로 옮길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매운 계절의 ㉠<u>챗죽</u>에 갈겨
㉡<u>마츰내</u>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u>그우</u>에서다

어데다 무릎을 꾸러야하나?
한발 ㉣<u>재겨디딜</u>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깜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보다

- 이육사, 「절정」-

① ㉠: 채찍 ② ㉡: 마침내
③ ㉢: 그 위 ④ ㉣: 재껴 디딜

13. ④
㉣의 '재겨 디딜'은 '발끝이나 뒤꿈치만 땅에 닿게 하는'의 뜻으로, 한발도 디딜 곳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이육사, 「절정」
1)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상징시
2) 성격 : 의지적. 지사적. 남성적, 상징적
3) 구성상의 특징
구성상 1, 2, 3, 연을 통해 식민지의 극한적인 상황이 차츰 고조되면서, 4연에서는 그 극대점에서 현실에 대한 시인의 냉철한 인식과 극복 의지가 표출된다.
-1연: 고통의 현실(수평적 한계)
-2연: 고통의 심화(수직적 한계)
-3연: 고통의 절정(심리적 한계)
-4연: 고통의 극복(현실 초극 의지)
4) 주제 :
가혹한 현실을 초극(超克)[어려움 따위를 극복함]하려는 의지, 극한 상황에서의 초월[어떤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음]적 인식

14.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u>다른</u> 하나는?

① 옷 색깔이 아주 <u>밝구나</u>!
② 이 분야는 전망이 아주 <u>밝단다</u>.
③ 내일 날이 <u>밝는</u> 대로 떠나겠다.
④ 그는 예의가 <u>밝은</u> 사람이다.

14. ③
③의 '밝다'는 현재 진행형으로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이다.

15. <보기>의 ( )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차례로 나열한 것은?

<보기>

지난여름 작가 회의에서 북한 돕기 시 낭송회를 한 적이 있다. 시인들만 참석하는 줄 알았더니 각계 원로들도 자기가 평소에 애송하던 시를 낭송하는 순서가 있다고, 나한테도 한 편 낭송해 달라고 했다. 내가 (㉠) 소리를 듣게 된 것이 당혹스러웠지만, 북한 돕기라는 데 핑계를 둘러대고 빠질 만큼 빤질빤질하지는 못했나 보다.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 아니었을까. 그 무렵 나는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에 사로잡혀 있었다. 김용택은 내가 좋아하는 시인 중의 한 사람일 뿐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라고는 말 못하겠다. 마찬가지로 '그 여자네 집'이 그의 많은 시 중 빼어난 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

	㉠	㉡
①	원로	낭송하고 싶은 시가 있었다는 게
②	아쉬운	서로가 만족하게 될 실리가
③	시인	잠깐의 수고로 동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④	입에 발린	원로들에 대한 예의가

15. ①
빈칸의 앞, 뒤 문맥적 흐름을 보면 ㉠에는 '원로'가 적절하고, ㉡에는 '핑계'나 거역할 수 없는 명분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낭송하고 싶은 시가 있었다'가 적절하다.

16. <보기>의 밑줄 친 어휘들 가운데 문맥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보기>

불문곡직하는 직설은 사람을 찌른다. 깜짝 놀라게 해서 제압하는 방식이다. 거기 비해 완곡함은 뜸을 들이면서 에두른다. 듣고 읽는 이가 비켜갈 틈을 준다. 그렇다고 완곡함이 곡필인 것도 아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도록 하는 게 아니라 화자와 독자의 교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준다. 곱씹어볼 말이 사라지고 상상의 여지를 박탈하는 글이 군림하는 세상은 살풍경하다. 말과 글이 세상을 따라갈진대 세상을 갈아엎지 않고 말과 글이 세상과 함께 아름답기는 난망한 일인가. 아마 아닐 것이다. 막힐수록 옛것을 더듬으라 했다. 물태와 인정이 극으로 나뉘는 세상에서 다산은 선인들이 왜 산을 바라보며 즐기되 그 흥취의 반을 항상 남겨두는지 궁금했다. 그는 미인을 만났던 사람이 적어놓은 글에서 그 까닭을 발견했다. 그가 본 글은 이러했다. '얼굴은 아름다웠으나 그 자태는 기록하지 않았다'

① 틈 ② 공간 ③ 여지 ④ 세상

16. ④
④의 '세상'은 '물태와 인정이 극으로 나뉘는' 곳으로, 부정적 의미의 공간이다.

17. <보기>의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안이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서 사환이 지적해 준, 나란히 붙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화투라도 사다가 놉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나 하세요."라고 안은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안이 나를 깨웠다.

① 물화된 도시의 삶이 만든 비정함, 절망감, 권태 등이 바탕에 깔려 있다.
② 주인공들은 자기 지위나 이름을 버린 익명적 존재로 기호화되어 있다.
③ 잠은 현실을 초월한 삶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환기하는 매개체다.
④ 화투는 절망과 권태를 견디는 의미 없는 놀이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17. ③
이 작품은 1964년 겨울의 서울을 배경으로 현실에서 소외된 고독한 세 인물이 서로 무심하게 만나고 헤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사회적 연대성을 잃은 현대인의 삶을 그리고 있다.
<보기> 중 '잠'은 이런 현대인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줄 뿐, 현실을 초월한 삶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환기하지는 않는다.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해제: 이 작품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인간의 고독과 소외, 의사소통의 단절을 다루고 있다. 1960년대 우리 사회의 전형성을 지닌 세 인물을 제시하여 피상적인 인간관계만을 강요하는 도시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 핵심정리
1) 갈래: 단편 소설
2) 성격: 현실 고발적, 사실적
3)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4) 배경: ▶ 시간 - 1964년 어느 겨울밤
▶ 공간 -서울 거리
5) 주제: 뚜렷한 가치관을 갖지 못한 도시인들의 방황과 연대감의 상실로 인한 절망
2. 제목의 의미
이 작품은 1964년 겨울의 서울을 배경으로 현실에서 소외된 고독한 세 인물이 서로 무심하게 만나고 헤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사회적 연대성을 잃은 현대인의 삶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대학원생 '안'과 서적 외판원 사내는 결국 1960년대 우리 사회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전형적 인물 유형인 것이다.

18.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내용을 담은 시조는?

> 성현의 경전을 읽고 자기를 돌이켜 보아서 환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거든, 모름지기 성현이 준 가르침이란 반드시 사람이 알 수 있고 행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임을 생각하라. 성현의 말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이것은 내가 힘쓴 노력이 철저하지 못한 까닭이다. 성현이 어찌 알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를 속이겠는가? 성현의 말을 더욱 믿어서 딴 생각이 없이 간절히 찾으면 장차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
> – 이황, 「독서」–

① 십년을 ᄀᆞ온 칼이 갑리(匣裏)에 우노ᄆᆡ라
관산(關山)을 ᄇᆞ라보며 ᄯᅢᄯᅢ로 ᄆᆞᆫ져 보니
장부(丈夫)의 위국공훈(爲國功勳)을 어ᄂᆡ ᄯᅢ에 드리올고.

② 구곡(九曲)은 어드ᄆᆡ고 문산(文山)에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奇巖 怪石)이 눈속에 뭇쳣셰라
유인(遊人)은 오지 안이ᄒᆞ고 볼씻업다 ᄒᆞ드라

③ 강호(江湖)에 겨월이 드니 눈 기픠 자히 남다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오슬삼아
이 몸이 칩지 아니히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④ 고인(古人)도 날 몯 보고 나도 고인 못 봬
고인을 못 봐도 녀ᄃᆞᆫ 길 알픠 잇ᄂᆡ
녀ᄃᆞᆫ 길 알픠 잇거든 아니 녀고 엇졀고
강호에 겨울이 오니 쌓인 눈의 깊이가 한 자가 넘는다.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도롱이를 둘러 입어 덧옷을 삼으니,
이 몸이 이렇듯 춥지 않은 것도 임금의 은혜 덕분이다.

19.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 '쇠항아리'와 의미가 통하는 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 네가 본 건, 먹구름 / 그걸 하늘로 알고
> 일생을 살아갔다.
>
>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 ㉠쇠항아리,
> 그걸 하늘로 알고 / 일생을 살아갔다.
>
> 닦아라, 사람들아 / 네 마음속 구름
> 찢어라, 사람들아, / 네 머리 덮은 쇠항아리.
>
> –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中–

① 조국아 / 한번도 우리는 우리의 심장 / 남의 발톱에 주어본 적 / 없었나니 (「조국」 中)

② 아사달과 아사녀가 /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 부끄럼 빛내며 /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中)

③ 꽃피는 반도는 / 남에서 북쪽 끝까지 / 완충지대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中)

④ 마을 사람들은 되나 안 되나 쑥덕거렸다. / 봄은 발병 났다커니 / 봄은 위독하다커니 (「봄의 소식」 中)

18. ④
밑줄 친 구절은 성현의 경전을 읽으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④는 이황의 <도산십이곡> 중 9수로, 옛 성현의 가르침(진리)를 본받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① 이순신의 시조로 우국 충정(憂國衷情)과 장부의 호기를 노래했다.
현대어 해석
십 년이나 갈아온 칼이 갑(칼집) 속에서 우는구나.
관문(關門)을 바라보며 그 갑 속에 든 칼을 때때로 만져 보니,
대장부의 나라를 위한 큰 공을 어느 때에 세워 임금께 그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② 이이의 <고산구곡가> 중 10수로 세속인들의 경박함 비판한 작품이다.
현대어 해석
아홉 번째 굽이는 어디냐 문산에 한 해가 저무는구나.
기이하게 생긴 바위와 돌이 눈 속에 묻혀 버릴까 걱정되는구나.
이리저리 놀러 다니는 사람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
③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중 4수로 겨울 강촌에서의 安貧樂道(안빈낙도)를 노래한 작품이다.
현대어 해석

19. ①
밑줄 친 ㉠의 '지붕 덮은 쇠항아리'는 2연의 '먹구름'과 함께 민중들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암담한 현실 상황을 상징한다.
①의 '발톱'도 우리의 조국, 우리의 심장을 억압하는 외세를 상징한다.
② 중립의 '초례청(醮禮廳)'은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민족 화해의 장(場)을 상징한다.
③ 신동엽,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완충지대'는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자대이며, 남북한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평화로운 공간을 의미한다.
④ 신동엽, '봄의 소식'
'봄'은 통일을 의미한다.

20.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현행 표준 발음법에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단, ':'은 장모음 표시임.)

① 비가 많이 내려서 물난리가 났다. -물난리[물랄리]
② 그는 줄곧 신문만 읽고 있었다. -신문[심문]
③ 겨울에는 보리를 밟는다. -밟는다[밤:는다]
④ 날씨가 벌써 한여름과 같다. -한여름[한녀름]

20. ②
'신문'은 [신문]으로 발음한다. [심문]으로 발음하는 양순음화는 인정하지 않는다.